

인도네시아 양층어 현상 연구

이주영

(하사누딘대학교)

Lee, Juyoung. (2014). A Study on Diglossic Phenomena in Indonesia.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2(3), 153-177. This paper looks at the diglossic phenomena in Indonesia from two perspectives. One is an intra-language perspective which compares Indonesian high variety with Indonesian low variety based on Ferguson(1959, 1972, 1991). The other is an inter-language perspective which compares Indonesian with local languages based on Fishman(1967, 1971, 1972).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 demise of local languages in Indonesia depending upon 'bilingualism without diglossia' that was introduced by Fishman. In addition, this paper emphasizes the necessity of education for Indonesian low variety in higher education.

주제어(Key Words): 양층어(diglossia), 상층어(high variety), 하층어(low variety), 지방어 (local language), 양층어가 부재한 이중어(bilingualism without diglossia)

1. 들어가는 말

세계 최대 도서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언어생태계가 복잡한 나라로 유명하다. 세계 언어의 약 1/10이 산재해 있는 인도네시아는 국가통합을 위해 1945년 헌법 제15장 제36절에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를 국어로 규정하였다(전태현, 2014; Nababan, 1985; Steinhauer, 1994).¹⁾ 하지만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은 아직도 자신의 종족어를 제1언어로 습득하며,²⁾ 인도네시아어 대신 자신의 종족어를 일상생활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1) 인도네시아에 산재한 언어의 정확한 수와 종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흔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400개 이상의 언어가 인도네시아에 존재한다고 기술된다(Dardjowidjojo, 1998; Steinhauer, 1994). 한편, 2001년 SIL 자료는 인도네시아의 지방어 수를 731개로 분석하고 있다(전태현, 2014).

2) 인도네시아어 제1언어 화자 수는 1928년 50만 명가량에서 1980년 1700만 명 정도로 급증하였다. 하지만 이는 자바어 제1언어 화자 수의 1/3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Nababan, 1985).

다언어·다종족사회인 인도네시아는 양층어적(diglossic) 특징을 가진다. 양층어는 현대 사회에선 드문 현상이지만(Hudson, 2002),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 양층어적 특징을 비교적 뚜렷이 가지고 있다(Sneddon, 2003a).

인도네시아의 양층어적 특징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연구가 미진한 분야이다. 하지만 양층어는 다언어사회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 사회언어학의 거시적 연구주제에 해당한다(Stepkowska, 2012, p. 200). 다시 말해, 양층어는 다언어사회의 사회언어적 특징을 큰 틀에서 함축하고 있는 언어 현상인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사회언어적 현상을 그동안 인도네시아어 학계가 소홀히 다뤄온 것은 과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Sneddon, 2003a, p. 519).

본 논문은 인도네시아의 양층어 현상을 고찰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인도네시아어 상층어와 하층어 간의 관계 그리고 인도네시아어와 지방어 간의 관계를 양층어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겠다. 또한, 이와 더불어 지방어 사멸 문제와 고등 교육에서의 인도네시아어 양층어 교육 문제도 함께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양층어의 언어학적 정의를 살펴본다. 특히, 퍼저슨(Ferguson, 1959, 1972, 1991)의 전통적 정의와 피시먼(Fishman, 1967, 1971, 1972)의 확대 해석된 정의를 알아본다. 3장에서는 인도네시아어 상층어와 하층어 간의 관계를 퍼저슨의 정의에 기대어 고찰한다. 4장에서는 인도네시아어와 지방어 간의 관계를 피시먼의 정의에 기대어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지방어 사멸 문제를 논한다. 5장에서는 고등 교육에서의 인도네시아어 양층어 교육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6장에서는 결론을 논지하며 글을 맺는다.

2. 양층어의 언어학적 정의

양층어는 아랍어 학자인 윌리엄 말카이스(William Marçais)가 1930년 ‘diglossie’란 불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양층어가 사회언어학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퍼저슨이 1959년 ‘diglossia’란 논문을 발표한 이후로 볼 수 있다. 퍼저슨은 위 논문에서 상층어(high variety)와 하층어(low variety)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는데, 이는 사회언어학 발전에 중요한 교두보가 되었다(Kaye, 2001, p. 117). 이후, 피시먼은 단일 언어 사회에 한정되어 있던 양층어의 개념을 다언어사회까지 확장·발전 시켰다. 최근에는 양층어를 연속체적 관점에서 다루는 연구도 있지만, 본 논문은 이분법적인 퍼저슨과 피시먼의 양층어 정의를 토대로 인도네시아의 양층어 현상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2.1. 퍼저슨의 양층어 정의

퍼저슨은 단일 언어의 두 코드(code)가 기능 측면에서 뚜렷이 구분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양층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Christopher, 1993; Stepkowska, 2012). 퍼거슨은 아래와 같이 양층어를 정의하였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양층어의 핵심 개념이 상층어와 하층어의 구분임을 엿볼 수 있다.

Diglossia is a relatively stable language situation in which, in addition to the primary dialects of the language (which may include a standard or regional standards), there is a very divergent, highly codified (often grammatically more complex) superposed variety, the vehicle of a large and respected body of written literature, either of an earlier period or in another speech community, which is learned largely by formal education and is used for most written and formal spoken purposes but is not used by any sector of the community for ordinary conversation(Ferguson, 1972, p. 245).

위 정의와 더불어 퍼거슨은 양층어를 정의하는 조건 10개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 조건들은 지금껏 특정 언어의 양층어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로 사용돼 왔는데, 이를 Winford(1985)에서처럼 언어적 조건과 사회·문화적 조건으로 나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hristopher, 1993, pp. 40, 41).

표 1. 양층어를 정의하는 조건

| 언어적 조건 | 사회·문화적 조건 |
|------------------------|--------------------------|
| 단일 언어(single language) | 기능(function) |
| 안정성(stability) | 권위(prestige) |
| 문법(grammar) | 문학 유산(literary heritage) |
| 어휘(lexicon) | 언어 습득(acquisition) |
| 음운(phonology) | 표준화(standardization) |

출처: Christopher(1993, pp. 40, 41)

먼저, 언어적 조건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단일 언어는 상층어와 하층어가 반드시 동일 언어의 두 변이어(variety)야 함을 의미한다. 즉, 두 변이어가 다른 언어여서는 안 된다. 안정성은 상층어와 하층어의 구분이 최소 몇 세기 간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어야 함을 말한다. 문법은 상층어의 문법이 보통 하층어의 문법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을 나타낸다. 즉, 전자가 후자보다 더 유표적(marked)이라는 것이다. 어휘는 두 변이어에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는 서로

다른 어휘들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특정 어휘의 존재가 상층어와 하층어를 구분 짓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음운은 상층어와 하층어 간 음운 차이가 존재함을 말한다(Christopher, 1993, p. 40).

다음으로, 사회·문화적 조건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기능은 상층어와 하층어가 기능 측면에서 상보적 분포를 보여야 함을 의미한다.³⁾ 즉, 상층어는 설교, 대학 강의, 뉴스, 시, 개인 서신 등 공식적인 상황에 사용되는 반면, 하층어는 일상 대화처럼 비공식적인 상황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위는 상층어가 하층어보다 더 우월한 언어로 인식됨을 말한다. 문학 유산은 상층어가 많은 문학 유산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언어 습득은 상층어가 모어로 습득되지 않음을 말한다. 그리고 표준화는 상층어에 문법, 발음, 어휘 등에 관한 규범이 있어야 함을 나타낸다(Christopher, 1993, p. 41).⁴⁾

퍼거슨은 위에서 살펴본 양층어의 정의와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언어로 아랍어(Arabic), 스위스 독일어(Swiss German), 아이티 크레올어(Haitian Creole), 그리고 현대 그리스어(Modern Greek)를 선정하였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와 같은 퍼거슨의 언어 선택을 다소 의문시해왔다. 왜냐하면, 특정 아랍어 방언의 두 변이어는 모두 시 창작에 사용되고(Kaye, 2001, p. 123), 상층어인 표준 독일어는 하층어인 스위스 독일어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식되지 않는 등 여러 예외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Stepkowska, 2012, p. 206).

위에서 살펴본 퍼거슨의 양층어 정의는 이중어(bilingualism) 또는 표준어-방언(standard-dialect)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이중어는 두 언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퍼거슨이 제시한 양층어의 정의와 상치된다. 다음으로, 표준어-방언은 상층어인 표준어를 모어로 습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층어와 구별된다(Christopher, 1993, p. 43).⁵⁾

2.2. 피시먼의 양층어 정의

피시먼은 공동체 내 다언어사용을 연구한 저명한 사회언어학자이다. 피시먼은 다언어사회를 분석하기 위해 퍼거슨의 양층어 정의를 둘 이상의 언어, 방언 또는 문체에까지 확대 적용하였다.⁶⁾ 이런 사실은 아래에 인용한 피시먼의 양층어 정의에 잘 드러나 있다.

3) 흔히 기능이 양층어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간주된다(Deterding, 1998, p. 18; Sridhar, 1996, p. 55; Stepkowska, 2012, p. 201).

4) 권위, 문학 유산, 언어 습득, 그리고 표준화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Paolillo, 1994, p. 18).

5) 퍼거슨은 양층어와 표준어-방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If we assume that there are two basic dimensions of variation in language, dialect variation correlating with the place of the speaker in the community and register variation correlating with occasions of use, then the H and L varieties of diglossias are register variants, not dialect variants(Ferguson, 1991, p. 222).

6) 현대 한국 사회에선 양층어란 개념이 낯설지만, 한국 사회도 천 년가량 양층어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고

Diglossia exists not only in multilingual societies which officially recognize several 'languages' but, also, in societies which are multilingual in the sense that they employ separate dialects, registers or functionally differentiated language varieties of whatever kind(Fishman, 1967, p. 30).

하지만 피시먼은 양층어를 이중어와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진 않았다. 왜냐하면, 이중어는 언어 간 상보적 기능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Sridhar, 1996, p. 55). 이처럼 기능은 피시먼의 양층어 정의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파솔드가 "only function remains unchallenged; it is the very heart and soul of the diglossia concept(Fasold, 1984, p. 53, Stepkowska(2012, p. 204)에서 재인용)"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사실을 잘 보여준다.

피시먼은 언어 간 기능 차이가 있을 때에만 언어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언어 간 상보적 분포가 언어의 존속을 강화한다고 본 것이다(Garcia & Schiffman, 2006, pp. 20, 21; Stepkowska, 2012, p. 205). 이런 주장과 함께, 피시먼은 언어사회의 유형을 양층어와 이중어의 관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 언어사회의 유형(Antonini, 2006, p. 3)

a. 이중어가 존재하는 양층어 사회

상층어와 하층어가 서로 다르게 습득된다. 하층어는 집에서 습득되며, 가족 간이나 친밀한 교제에 주로 사용된다. 반면, 상층어는 절대로 집에선 습득되지 않으며, 교육, 종교, 행정 등에 사용된다. 이 사회의 화자들은 대부분 상층어와 하층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b. 이중어가 부재한 양층어 사회

서로 다른 두 언어공동체가 정치적, 종교적 또는 경제적으로 동일한 사회에 편입될 때 나타난다. 한 언어공동체는 지배 권력으로 상층어만을 사용하는 반면, 다른 언어공동체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으며 하층어만을 사용한다.

c. 양층어가 부재한 이중어 사회

두 언어 간 상보적 분포가 불분명한 이중어 사회를 말한다. 두 언어가 동일한 영역(domain)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우월한 언어가 다른 언어의 기능을 점점 잠식해간다. 이로써, 언어 확장(language spread) 또는 언어 교체(language shift)가 발생한다.

d. 이중어와 양층어가 모두 부재한 사회

매우 작고 고립된 평등한 언어공동체 사회를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사회

전 중국어와 한국어의 기능 차이가 바로 그것이다(Cho, 2002).

를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가언적 사회라고도 볼 수 있다(Stepkowska, 2012, p. 208).

피시먼은 위에 기술한 언어사회의 네 유형 중에서 (1a)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Garcia & Schiffman, 2006, pp. 20, 21). 왜냐하면, (1a)가 가장 일반적이고 안정적인 언어사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파라과이의 사회언어적 상황이 여기에 해당한다. 파라과이에선 스페인어와 과라니어(Guaraní)가 기능 측면에서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 즉, 하층어인 과라니어는 제1언어로 습득된 후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반면, 상층어인 스페인어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며 제2언어로 학습된다(Christopher, 1993, p. 42). 피시먼은 이처럼 언어 간 상보적 분포가 뚜렷해야 다언어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피시먼은 (1b-d)를 드물거나 불안정한 언어사회로 보았다. 이 중에서 정세가 급변하는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1c)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양층어 현상이 언어 존속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1c)가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어와 지방어의 관계가 (1c)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점은 4장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3. 표준 인도네시아어와 비표준 인도네시아어⁷⁾

인도네시아어는 상층어인 표준 인도네시아어(standard/formal Indonesian)와 하층어인 비표준 인도네시아어(informal Indonesian)로 양분되는데,⁸⁾⁹⁾ 이 두 변이어가 양층어적 특징을 보인다. 이번 장에서는 퍼거슨이 제시한 표 1의 조건들을 중요도에 따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인도네시아어의 양층어 현상을 고찰해보도록 하겠다(Stepkowska, 2012, pp. 200, 201). 단, 조건 ‘단일 언어’는 본 논의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

3.1. 기능

표준 인도네시아어와 비표준 인도네시아어는 기능 측면에서 비교적 뚜렷한 상보적 분포

7) 이번 장은 Sneddon(2003a)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8) 본고는 표준 문법 규칙과 표준 어휘의 유무에 따라 표준 인도네시아어와 비표준 인도네시아어를 정의한다. 다시 말해, 전자와 후자를 각각 표준 문법 규칙에 부합하고 표준 어휘가 사용된 언어와 표준 문법 규칙에 맞지 않거나 비표준 어휘가 사용된 언어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표준 인도네시아어와 비표준 인도네시아어의 구분은 문어와 구어의 구분과 동일하지 않다. 즉, 표준 문법 규칙과 표준 어휘의 유무에 따라 문어도 비표준 인도네시아어가 될 수 있고, 구어도 표준 인도네시아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9) 본고는 속어(slang)도 비표준 인도네시아어의 한 유형으로 다루는데, 여기서 속어는 보통 건달 언어(bahasa Prokem)나 동성애자 언어(bahasa Binan)에서 유래한 친교 언어(bahasa Gaul)를 말한다(Sartini, 2012, p. 123).

를 보인다. 상층어인 표준 인도네시아어는 행정, 법, 강의, 연설, 문학, 시, 방송, 교육 등 공식적인 상황에 사용되는 반면, 하층어인 비표준 인도네시아어는 일상적인 대화와 같은 비공식적인 상황에 주로 사용된다(Sneddon, 2003a, p. 522).

이런 두 변이어의 상보적 분포는 퍼거슨이 언급한 분포 양상과 대부분 일치하지만, 다소 차이나는 점도 있다. 예를 들어, 젊은이들의 편지와 뉴스 인터뷰에는 상층어 대신 하층어가 주로 사용된다(Sneddon, 2003a, p. 522). 그리고 최근에는 인쇄 매체에서도 하층어의 사용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 메트로팝(metropop) 소설, 그리고 청소년 소설(teenlit)에서 이런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다.

인도네시아어 두 변이어의 상보적 분포는 아래 (2)에 기술한 청소년 소설 속 인도네시아어 사용 양상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 청소년 소설의 인도네시아어 사용 양상

- a. Keluarga Gita memutuskan pindah ke Bandung secara tiba-tiba saat Gita berusia dua belas tahun(Pricillia, 2012, p. 12).

기타가 12살이던 무렵, 그녀의 가족은 갑작스레 반둥으로의 이사를 결정하였다.¹⁰⁾

- b. "Gue nggak tau hubungan apa yang lo jalanin sama Nathan... (Pricillia, 2012, p. 114)"

"내가 나탄과 어떤 관계인지는 몰라도..."

위 (2a)와 (2b)는 각각 소설의 서술 부분과 대화 부분에 해당하는데, 서술 부분에는 상층어가, 대화 부분에는 하층어가 사용되고 있다.¹¹⁾ (2b)의 'jalanin'은 표준 문법이 인정하지 않는 접미사 '-in'을 가지고 있으며, 'gue', 'nggak', 'tau', 그리고 'lo'는 각각 표준 어휘 'saya/aku', 'tidak', 'tahu', 그리고 'kamu'에 대응되는 비표준 어휘이다. 따라서 표준 문법과 표준 어휘를 사용한 (2a)와 달리, (2b)는 하층어로 규정된다. (2b)를 이에 해당하는 상층어 표현 'Saya tidak tahu hubungan apa yang kamu jalani dengan Nathan...'과 비교해보면, 인도네시아어 두 변이어의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2. 권위

표준 인도네시아어는 사회적으로 비표준 인도네시아어보다 더 훌륭하고 권위 있는 언어로 인식된다.¹²⁾ 표준 인도네시아어 구사 능력이 전문직 종사의 필수 조건이라는 점과 표준

10) 본고에서 인도네시아어는 전체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역되었다.

11) 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거나 어떤 사건을 기술할 때는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상층어가 종종 사용된다.

인도네시아어가 교육의 산물이라는 점 등이 표준 인도네시아어의 권위와 관련돼 있다 (Sneddon, 2003a, p. 523).

몇몇 인도네시아어 화자들은 표준 인도네시아어의 권위에 집착한 나머지 비표준 인도네시아어를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어로 간주하기도 한다(Sridhar, 1996, p. 55). 이런 시각은 정부의 언어정책 구호 ‘Gunakanlah Bahasa Indonesia yang baik dan benar’ “올바르고 좋은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라”에도 담겨 있다(Chaer, 2002, p. 20; Sneddon, 2003a, p. 524).¹³⁾ 또한, 인도네시아어를 정의할 때 흔히 표준 인도네시아어만이 고려되며, 외국어로서의 인도네시아어 교육도 표준 인도네시아어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Sneddon, 2003a, p. 524).

3.3. 문학 유산

인도네시아어 상층어는 많은 문학 유산을 가지고 있다.¹⁴⁾ 이것들은 보통 비석, 나무껍질, 물소의 뺨, 구리판, 종이 등에 기록되었는데, 고온다습한 기후 탓에 고대 문학은 주로 비석, 구리판 또는 뺨에서만 확인된다. 인도네시아어로 기록된 비석은 수마트라 섬, 자바 섬, 필리핀 등에서 발견되는데, 수마트라 섬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그 제작 연도가 일반적으로 더 늦어진다(Collins, 2011, p. 9). 팔라와(Pallawa)문자로 기록된 인도네시아어 고대 문학에는 산스크리트어 차용어가 많이 발견된다.

이슬람이 도래한 13세기 이후에는 아랍문자를 사용해 인도네시아어 문학이 창작되기 시작하였다.¹⁵⁾ 아랍문자를 사용한 최고(最古)의 인도네시아어 문학은 1303년 트렝가누(Trengganu) 비석에서 발견된다. 이후, 이슬람법과 이슬람 교리에 대한 서적이 많이 집필되었는데, 이에 대한 예로 함자 판수리(Hamzah Fansuri)의 시를 들 수 있다(Fang, 1993, p. 43). 또한, 역사서도 아랍문자를 통해 많이 서술되었다.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파사이 왕들의 이야기(Hikayat raja-raja Pasai, 14세기)이지만, 가장 중요한 역사서는 단연 멀라유 역사

12) 다언어사회도 보통 이와 같은 언어 간 계층 관계를 가지는데, 이를 다언어 사용의 비대칭적 원리(asymmetric principle of multilingualism)라고 부른다(Sridhar, 1996, p. 52).

13) 1950년대 정부의 언어정책 구호는 ‘Gunakanlah Bahasa Indonesia’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라”였다. 이는 해방 후 네덜란드어 사용을 억제하고 인도네시아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다(Chaer, 2002, p. 20). 이후, 인도네시아어 표준 문법이 1980년대 말에 제정되자 ‘올바르고 좋은’이란 수식어가 언어정책 구호에 추가되게 되었다.

14) 인도네시아어는 멀라유어(Bahasa Melayu)의 한 방언에 속한다. 따라서 1928년 10월 28일 젊은이의 맹세(Sumpah Pemuda) 전까지 이 언어는 멀라유어로 불렸다. 하지만 아래에서는 1928년 이전의 언어도 인도네시아어로 지칭하도록 하겠다.

15) 이슬람이 도래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하지만 1292년 마르코 폴로(Marco Polo)가 북부 수마트라 섬에 도착했을 때 쓴 기록을 보면, 13세기에는 이미 인도네시아에 이슬람이 전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Collins, 2011, p. 12).

(Sejarah Melayu/Sulalatus Salatin, 15-16세기)이다(Fang, 1993, pp. 89, 93). 말라유 역사는 아름답고 훌륭한 언어로 기록돼 있어 항투아 이야기(Hikayat Hang Tua)와 함께 2001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전태현, 2014).

인도네시아어 전통 문화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문학 유산은 16세기에 많이 창작되었는데, 이 시기는 서양 세력이 처음 인도네시아에 도래한 시기와 비슷하다(Collins, 2011, p. 24). 인도네시아어의 가장 오래된 필사본(manuscript)은 1521년과 1522년 터르나테(Ternate)의 술탄 아부 하얏(Abu Hayat)이 포르투갈에게 보낸 외교 서한이다. 외교 서한에 인도네시아어가 사용된 점은 그 당시 인도네시아어의 지위를 잘 보여준다.

16세기 서양 세력이 인도네시아에 도래한 후, 라틴문자로 인도네시아어가 기록되기 시작하였다.¹⁶⁾ 피가펫타(Pigafetta)는 1522년 인도네시아어 어휘집을 출간하였고, 17세기 초 호우트만(Houtman)은 인도네시아어 학습서와 회화교재를 출판하였다(Collins, 2011, pp. 21, 34, 35). 또한, 17세기엔 성경도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되기 시작하였다(전태현, 2014). 그리고 19세기 중반과 후반에는 ‘Soerat Kabar Bahasa Melajioe’, ‘Soerat Chabar Soldadoe’와 같은 신문도 출판되어, 인도네시아어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Collins, 2011, p. 80).

3.4. 언어 습득

상층어인 표준 인도네시아어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만 학습된다. 이 변이어를 모어로 습득하는 사람은 감히 없다고 단정할 수 있다. 반면, 하층어인 비표준 인도네시아어는 모어로 습득되거나 다른 종족과의 의사소통 또는 대중 매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된다.

이와 같은 인도네시아어의 언어 습득 양상은 아래에 제시한 피거슨의 논의와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종족어의 존재로 인해 인도네시아어 하층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점에서는 다소 차이가 난다.

L is invariably learned by children in what may be regarded as the normal way of learning one's mother tongue. H may be heard by children from time to time, but the actual learning of H is chiefly accomplished by the means of formal education(Ferguson, 1959, p. 331).

최근에는 종족어 대신 비표준 인도네시아어를 모어로 습득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인도네시아어 장려 정책과 이주 정책 탓으로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어 장

16) 유럽인의 출판인쇄업은 필사 전통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 따라서 라틴문자가 인도네시아에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었다(전태현, 2014).

려 정책은 종족어에 대한 관심을 사그라뜨려 종족어 사용을 위축하고 있으며, 이주 정책은 종족 간의 접촉을 확대해 인도네시아어 사용을 증가시키고 있다(Musgrave, 2011, p. 5).¹⁷⁾ 이 밖에, 교통과 대중 매체의 발전도 종족어 대신 비표준 인도네시아어를 모어로 습득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3.5. 표준화

인도네시아어 상층어는 문법, 어휘, 그리고 철자법 측면에서 이미 표준화되었다. 이 변이어의 이름에 표준이 사용된 것만 봐도 이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어 상층어의 표준 문법서와 사전 편찬은 1983년 제4회 언어대회(language congress)에서 논의된 후, 1988년 각각 인도네시아어 표준 문법(Tatabahasa Baku Bahasa Indonesia)과 인도네시아어 대사전(Kamus Besar Bahasa Indonesia)으로 그 결실을 맺었다(Dardjowidjojo, 1998, pp. 42, 43). 인도네시아어 상층어의 철자법은 1972년 8월 16일 완성철자법(Ejaan Yang Disempurnakan)의 제정으로 표준화되었다. 이후, 1987년에는 완성철자법 지침서(Pedoman Umum Ejaan Yang Disempurnakan)도 제작·공표되었다(Dardjowidjojo, 1998, p. 41).

이에 반해, 인도네시아어 하층어는 문법, 어휘, 철자법 등 모든 측면에서 아직 표준화되지 않았다. 표준화의 부재로 인해, 각 지역마다 상이한 하층어가 사용되고 있다. 즉, 각 지역의 지방어가 하층어에 혼합돼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 예로, 마카사르 시에서 사용되는 인도네시아어 하층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마카사르 시의 인도네시아어 하층어

a. cocok-mi! “딱 좋아!, 어울리네!”

b. duduk-ko! “앉아!”

c. Pergi ke Lombok? Ke Bali ja. “롬복에 가? 발리에만 가.”

(Jukes, 2011, p. 27)

위 (3)을 보면, 마카사르 시에서 사용되는 인도네시아어 하층어에 마카사르어(Makassarese)가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3a)는 어떤 상황이 자신과 부합하거나 어울릴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여기에 마카사르어 불변화사 ‘-mi’가 인도네시아어 ‘-lah’ “권유나 약한 명령을 나타내는 불변화사” 또는 ‘sudah’ “이미, 벌써”를 대신해 사용되고 있다(Manyambeang et al., 1996, p. 222). (3b)는 앉으라고 명령·권유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

17) 종족 간 접촉이 항상 지방어 사용을 위축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수준이 낮고 이웃 간 만남이 빈번한 지역에선 종족 간의 접촉이 지방어 사용을 증가시키기도 한다(Goebel, 2005; Steinhauer, 1994).

다. 여기에는 마카사르어 명령 접어 '-ko'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로써 청자가 손아랫사람이나 친한 사람임이 드러난다(Manyambeang et al., 1996, p. 52). 한편, (3c)는 발리에만 간다는 점을 표현한 발화인데, 이 발화에서 한정성 또는 제한성이 마카사르어 'ja'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3a-c)와 같은 발화는 대체로 마카사르 시가 위치한 남부 술라웨시(South Sulawesi)에서만 사용된다. 다시 말해, 다른 지역에선 그 지역의 지방어와 결합한 또 다른 형태의 인도네시아어 하층어가 사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어 하층어의 표준화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즉, 대중 매체의 영향으로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어가 하층어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Sneddon, 2003a, pp. 527, 528). 또한, 메트로팝 소설과 청소년 소설의 출판으로 인도네시아어 하층어의 표준 정서법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문법서도 최근 계속 집필되고 있다(Sneddon, 2003a, p. 528).

3.6. 안정성

인도네시아어의 두 변이어는 오래 전부터 서로 구별되어 존재해왔다. 가장 오래된 인도네시아어는 682년에 제작된 코두칸 부킷(Kedukan Bukit) 비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코타 카푸르(Kota Kapur), 탈랑 투위(Talang Tuwo)와 같은 비석들에서 인도네시아어를 발견할 수 있다(Boechari, 2012). 하지만 이 비석들에 기록된 고대 인도네시아어는 상층어만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비석의 내용이 대부분 법률, 종교, 왕국 건설, 역사 그리고 전기 등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Collins, 2011, p. 11). 따라서 그 당시 하층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현재로서는 짐작하기 어렵다.

그러나 하층어가 그 당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중국 승녀 이칭(I-ching)의 기록에서 추정해볼 수 있다. 이칭은 671년 스리위자야(Sriwijaya)왕국의 수도 포시(Fo-shih)에 6개월간 머물며 불법을 구하었는데, 그 당시 이칭이 인도네시아인과 인도네시아어로 의사소통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인도네시아어 하층어가 그 당시 이미 말라카(Malaka) 해협의 통용어(lingua franca)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전태현, 2014; Collins, 2011, p. 9).

15세기 인도네시아어 상층어는 서한, 이슬람 연구, 회계, 해양법, 신용증서, 무역허가증 등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었으며, 16세기에는 문학작품과 법을 기록하는데도 자주 이용되었다. 한편, 인도네시아어 하층어는 일상적인 업무, 상업, 시장 등에서 일상생활의 언어로서 사용되었다(Collins, 2011, pp. 20, 24, 30).

16세기 서양 세력이 인도네시아에 도래한 이후, 서양 세력은 기독교 교육을 위해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였다. 서양의 기독교 교육은 인도네시아어 상층어의 표준화 움직임을 야기하였는데(Sneddon, 2003b, pp. 84, 85), 이 언어를 현 인도네시아어 상층어의 뿌리로 볼 수

있다(Musgrave, 2011, p. 3; Wouk, 2004, p. 21). 이후, 인도네시아어 상층어는 1928년 젊은이의 맹세에서 국어로 결의된 후 1945년 헌법에 국어로 명시되었다.

3.7. 문법

인도네시아어 상층어는 하층어에 비해 문법적으로 더 복잡하고 엄격한 특징을 가진다. Sneddon(2003a)은 위 두 변이어 간에 나타나는 문법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상층어에선 청자 포함 여부에 따라 1인칭 복수 대명사 ‘kita(청자 포함)’와 ‘kami(청자 불포함)’가 사용되지만, 하층어에선 보통 ‘kita’만이 사용된다. 둘째, 하층어에선 접미사 ‘-i’와 ‘-kan’ 대신 발리어에서 유래한 접미사 ‘-in’이 자주 사용된다.¹⁸⁾ 셋째, 상층어엔 다양한 전치사가 사용되지만, 하층어엔 ‘sama’만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 밖에도 두 변이어 간 문법 차이가 몇몇 관찰된다. 지시대명사와 명사의 어순 차이가 그 한 예이다. 상층어에선 항상 지시대명사가 명사 뒤에 위치하지만, 하층어에선 종종 명사 앞에 지시대명사가 오기도 한다. 아래 (4)를 살펴보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4) 지시대명사와 명사 어순

a. 상층어

Saya ingin menonton film ini dengan Heejeong.

나 원하다 보다 영화 이것 함께 회정

“나는 회정이와 함께 이 영화를 보고 싶다.”

비교) *Saya ingin menonton ini film dengan Heejeong.

b. 하층어

Gue pengen nonton filem ini sama Heejeong.

나 원하다 보다 영화 이것 함께 회정

“나는 회정이와 함께 이 영화를 보고 싶다.”

비교) Gue pengen nonton ini filem sama Heejeong.

위 (4a)와 (4b)를 보면, 상층어에선 지시대명사가 명사를 선행할 수 없지만, 하층어에선 지시대명사가 명사를 선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하층어의 특징은 지방어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마카사르어 등 여러 지방어에선 지시대명사가 명사를 선행

18) 하지만 접미사 ‘-in’이 항상 접미사 ‘-i’와 ‘-kan’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la memuntahi bajunya’ “그(녀)는 그(녀)의 옷에 토했다”를 ‘la muntahin bajunya’로 바꾸면 비문이 된다(Arka & Yannuar, 2013). 또한, 접미사 ‘-in’은 접미사 ‘-i’와 ‘-kan’이 없는 곳에서도 수의적으로 사용된다.

하거나 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Manyambeang et al., 1996, p. 134).

또한, 하층어에 불변화사(particle)가 자주 사용된다는 점도 인도네시아어 두 변이어 간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일상 대화에선 간략한 발화가 선호되기 때문에, 여러 함축적 의미를 갖는 불변화사가 하층어에 자주 나타나게 된다. 하층어에 자주 사용되는 불변화사로는 ‘deh’, ‘dong’, ‘eh’, ‘ko(k)’, ‘lo(h)/lho’, ‘nih’, ‘sih’ 그리고 ‘tuh’ 등이 있다.

3.8. 어휘

인도네시아어 상층어와 하층어는 대부분 동일한 어휘를 가지지만, 두 변이어 간 상이한 어휘들이 여럿 존재한다. 따라서 특정 어휘의 존재가 상층어와 하층어를 구분 짓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어휘 사용이 이분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기 때문에, 특정 어휘의 존재로 상층어와 하층어를 구분할 때는 주의가 요구된다(Sneddon, 2003a). 인도네시아어 두 변이어의 어휘 차이는 아래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 인도네시아어 두 변이어 간 어휘 차이

| 상층어 | 하층어 | 의미 |
|------------|-------------------|-------------|
| akan | bakal(an) | ~할 것이다 |
| aku/saya | gua, gue | 나 |
| besar | gede | 큰 |
| dan | en | 그리고 |
| hamil | bunting | 임신한 |
| ibu | nyokap | 어머니 |
| ingin | pengen, pengen | 원하다 |
| kamu | (e)lo, (e)lu | 너 |
| karena | saking | 때문에 |
| laki-laki | cowok | 남자 |
| lebih baik | mending | 더 좋은 |
| memberi | kasi(h) | 주다 |
| membuat | bikin | 만들다 |
| mengatakan | bilang | 말하다 |
| perempuan | cewek | 여자 |
| rindu | kangen | 그리워하다 |
| sekali | banget | 매우 |
| seperti | kayak | ~처럼 |
| ter- | ke- | 접두사(우연, 상태) |
| tidak | (e)nggak, gak, ga | 동사·형용사 부정 |

출처: Sneddon(2003a, p. 532)

3.9. 음운

인도네시아어의 두 변이어 간에는 몇몇 음운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어두 /s/는 하층어에서 종종 생략된다. 예를 들면, 'saja:aja', 'sama:ama', 'sudah:uda(h)' 등이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상층어의 3음절어 'sebentar'와 'sedikit'은 하층어에서 /sə/가 생략돼 'bentar'와 'dikit'으로 실현되기도 한다.¹⁹⁾

둘째, 하층어에선 어두, 어중 또는 어말의 /h/가 종종 생략된다. 예를 들면, 'bodoh:bodo', 'bohong:boong([boʔoŋ])', 'habis:abis', 'hancur:ancur', 'hitam:item', 'lebih:lebi', 'lihat:liat', 'sudah:uda', 'tahu:tau'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하층어에선 흔히 이중모음 /aw/와 /aj/가 각각 /o/와 /e/로 단모음화된다(Chaer, 2009, p. 69). 이에 대한 예를 'atau:ato', 'kalau:kalo', 'mau:mo',²⁰⁾ 'ramai:rame', 'sampai:sampe'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Sartini, 2012, pp. 128, 129).

넷째, 하층어에선 'a → ə/___C#' 변화가 종종 나타난다. 이에 대한 예를 'benar:bener', 'bosan:bošen', 'dapat:dapet', 'dekat:deket', 'dengar:denger', 'ingat:inget', 'injak:injek', 'segar:seger', 'sempat:sempet', 'teman:temen'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섯째, 상층어에선 능동접두사 'meN-'만이 사용되지만, 하층어에선 능동접두사 'N-'도 사용된다(Wouk, 2004). 접두사 'N-'은 접두사 'meN-'과 다른 이형태 양상을 보이는데, 이를 실례와 함께 제시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접두사 meN-과 N-의 이형태

| 어근의 첫소리 | 접두사 meN- | 접두사 N- | 예 |
|---------|----------|-----------|--|
| 모음 | meng- | ng- | mengajak:ngajakin mengerti:ngerti mengotot:ngotot membantu:ngebantu |
| b | mem- | nge-, m- | membantu:mbantu |
| c | men- | ny-(c 생략) | mencoba:nyoba |
| d | men- | nge-, n- | mendengar:ngedenger mendengar:ndenger |
| g | meng- | nge-, ng- | menggigit:ngegigit |

19) 이 밖에, 'bagaimana', 'begini', 'begitu' 등과 같은 3음절 이상의 단어도 하층어에서 각각 'gimana', 'gini', 'gitu' 등으로 축약돼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20) 'mau'의 'au'는 사실 이중모음이 아니라 모음의 연쇄이다(Chaer, 2009, p. 46). 하지만 이 단어에서도 흔히 단모음화가 발견된다.

| | | | |
|---|-------------|-----------|--|
| h | meng- | ng-(h 생략) | menggigit:nggigit menghabiskan:ngabisin |
| j | men- | nge-, n- | menjelaskan:ngejelasin menjawab:njawab |
| k | meng-(k 생략) | ng-(k 생략) | mengerjakan:ngerjain melihat:ngeliatin |
| l | me- | nge-, ng- | melihat:ngliatin |
| m | me- | ∅ | memarahi:marahin |
| n | me- | ∅ | menyanyi:nyanyi |
| p | mem-(p 생략) | m-(p 생략) | memanggil:manggil |
| r | me- | nge- | merayu:ngerayu |
| s | meny-(s 생략) | ny-(s 생략) | menyemprot:nyemprot |
| t | men-(t 생략) | n-(t 생략) | menonton:nonton |
| w | me- | nge- | mewarnakan:ngewarnain |
| y | me- | nge- | meyakinkan:ngeyakinin |

출처: Hassal(2011)

위에선 인도네시아어를 퍼거슨의 양층어 조건에 기대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어의 사회언어적 상황이 대부분 퍼거슨의 양층어 조건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인도네시아 사회를 인도네시아어의 측면에서 양층어 사회로 규정할 수 있겠다.

4. 인도네시아어와 지방어

인도네시아어와 대부분의 지방어는 오스트로네시아어족에 속하지만, 대체로 상호간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어와 지방어를 서로 다른 언어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네시아어와 지방어의 관계는 각 지방의 사회언어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실현되는데, 본고는 남부 술라웨시(마카사르 시와 기타 시골 지역)의 마카사르어와 인도네시아어의 관계를 피시먼의 양층어 정의에 기대어 분석해보도록 하겠다.²¹⁾ 그리고 위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어 사멸 문제도 함께 간략히 고찰해보겠다.

21) 각주 1에 언급한 것처럼, 인도네시아의 지방어는 그 수가 매우 많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어와 지방어 간 양층어 연구는 특정 지방어를 선정해 진행할 수밖에 없다. 본고는 인도네시아 지방어들 중에서 남부 술라웨시의 마카사르어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왜냐하면, 마카사르어의 사회언어적 상황이 4.3에서 다룬 지방어 사멸 문제를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4.1. 남부 술라웨시, 마카사르 시 그리고 마카사르어

남부 술라웨시는 46,717.48km² 면적에 8,034,776명(2010년 인구조사)이 거주하는 동부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지역이다(<http://sp2010.bps.go.id/index.php/navigation/topik>). 한글 차용으로 유명한 부톤(Buton) 섬과 인접해 있는 남부 술라웨시는 2010년 1분기 7.77%, 2분기 8.02% 등 최근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http://www.sulsel.go.id/content/profil-provinsi-sulawesi-selatan>).

마카사르 시는 남부 술라웨시의 수도로 동부 인도네시아의 경제, 문화,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이다. 마카사르 시의 총 인구는 1,272,349명인데, 전체 인구의 61.71%가 만 30세 미만이다. 2008년 10.52%, 2009년 9.20% 등 매우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마카사르 시에는 마카사르족, 부기스(Bugis)족, 토라자(Toraja)족, 만다르(Mandar)족 등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BPS Kota Makassar, 2010).

마카사르어는 부기스어와 함께 남부 술라웨시를 대표하는 지방어이다. 화자 수는 대략 2백만 명 정도이며(<http://forum.kompas.com/nasional/21368-75-200-000-orang-bertutur-bahasa-jawa.html>), 투라테아(Turatea), 콘조(Konjo), 라키웅(Lakiung), 반타엥(Bantaeng), 그리고 슬라야르(Selayar) 등 다섯 개의 방언으로 분류된다(Manyambeang et al., 1996, pp. 2, 3).

4.2. 양층어를 정의하는 조건

피커슨이 제시한 양층어 조건 중 언어적 조건 5개는 두 언어 간 양층어 현상을 논의하는데 그리 의미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사회·문화적 조건 5개만을 토대로 인도네시아어와 마카사르어의 관계를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4.2.1. 기능

인도네시아어의 상층어는 교육, 방송, 행정, 법, 강의, 문학, 시 등 공식적인 상황에 사용되고, 하층어는 친교와 일상대화 등 비공식적인 상황에 사용된다. 반면, 마카사르어의 상층어는 전통 예식 또는 지방어 교육에만 간간히 사용되고, 하층어는 친교와 일상대화 등 비공식적인 상황에 사용된다. 이런 언어적 상황을 보면, 인도네시아어와 마카사르어가 특히 하층어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부 술라웨시의 제네포토(Jeneponto), 타칼라르(Takalar), 팡쿱(Pangkep) 등 시골 지역은 대체로 외지 사람들이 적고, 이웃 간 만남이 잦으며, 도시보다 경제적으로 많이 뒤쳐져 있다. 이런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시골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마카사르어를 주로 사용한다. 즉, 공식적 상황에선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지만, 비공식적 상황에선 마카사르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시골의 언어 사용은 대체로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

이에 반해, 도시인 마카사르 시는 인구 구성의 이질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인도네시아어 사용이 권장된다(Nababan, 1985, p. 12). 또한, 경제관념이 발달한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인도네시아어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도시에선 인도네시아어와 마카사르어 간 기능 중복이 자주 관찰된다.

4.2.2. 권위

남부 술라웨시에서 국어인 인도네시아어는 마카사르어보다 훨씬 더 우월한 언어로 인식된다. 이는 인도네시아어가 교육의 산물이자 경제생활의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이다.²³⁾ 마카사르 시의 하사누딘대학교에는 마카사르어와 부기스어를 가르치는 지방어과(Jurusan Sastra Daerah)가 개설되어 있다. 하지만 아래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2009/2010학년도 전체 학생 수가 55명에 불과하다.

표 4. 2009/2010학년도 하사누딘대학교 인문대학 학과별 학생 수

| 학과 | 인원(명) |
|-----------------------------|-------|
| 인도네시아어과 | 158 |
| 영어과 | 742 |
| 불어과 | 94 |
| 아랍어과 | 96 |
| 고고학과 | 77 |
| 역사학과 | 120 |
| 일본어과 | 194 |
| 지방어과 | 55 |
| 지방어교사 학사프로그램 ²⁴⁾ | 52 |

출처: BPS Kota Makassar(2010, p. 126)

- 22) 가난할수록 일하는 시간이 짧아 지역 활동에 많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로써 이웃 간에 친밀감이 생기게 된다(Goebel, 2005). 이런 친밀감이 보통 지방어 사용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이 사회에 동화되려면 반드시 지방어를 배워야 한다.
- 23) 1975년 신교과과정부터 교육어가 지방어에서 인도네시아어로 바뀌게 되었다(전태현, 2010, 2014). 이로써 지방어의 위상이 급속도로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 24) 지방어교사 학사프로그램은 지방어 사멸을 막기 위해 마련된 특별 학사프로그램이다. 2008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의 졸업생은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 지방어 교사로 종사하게 된다. 이런 프로그램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남부 술라웨시의 지방어들이 멸절 위기에 봉착해 있음을 몸소 느낄 수 있다.

위 표를 보면, 지방어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어과 학생 수는 영어과 학생 수의 13분지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인도네시아어과 학생 수와 비교해도 그 차이가 적지 않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지방어의 낮은 권위와 경제적 가치를 엿볼 수 있다.

4.2.3. 문학 유산

마카사르족은 인도문자에서 유래한 론타락(Lontarak)문자와 아랍문자에서 유래한 세랑(Sérang)문자를 통해 몇몇 문학 유산을 남겨 놓았다(Cho, 2011). 이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은 단연 론타락문자로 기록된 라 갈리고(La Galigo)이다.²⁵⁾ 라 갈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긴 문학 유산으로 201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Ram & Bandung, 2011).

하지만 마카사르어 문학 유산은 그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더욱이 현재는 그 명맥조차도 거의 끊긴 상태이다. 왜냐하면, 2000년대 이후에 창작된 마카사르어 문학을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베트남의 동부 찰어(Cham)에서도 발견되는데, 위 두 경우를 모두 국어 장려 정책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Brunelle, 2008).

4.2.4. 언어 습득

남부 술라웨시의 어린이들은 대부분 마카사르어(또는 부기스어)나 인도네시아어를 제1언어로 습득한다. 마카사르어를 제1언어로 습득한 사람은 공교육이나 생활 속에서 인도네시아어를 제2언어로 학습하게 되는 반면, 인도네시아어를 제1언어로 습득한 사람은 단일 언어 사용자가 되거나 공교육이나 생활 속에서 마카사르어를 제2언어로 학습하게 된다.²⁶⁾

그런데 30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어를 제1언어로 습득하는 사람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마카사르족, 발리족, 바탁(Batak)족, 마두라(Madura)족, 미낭카바우

25) 마카사르족과 부기스족은 예로부터 긴밀히 접촉해 왔기 때문에, 이미 두 종족 간 동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전태현, 2013, p. 65). 따라서 인구조사나 언어조사 때 위 두 종족을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측면에서, 부기스족의 문학 유산인 라 갈리고를 여기에 소개하였다.

26) 전태현(2010, p. 185)이 “1992년 교육문화부장관의 결정 0487/4호에 의해서 지방어는 영어교육에 의해 밀려 나게 되었고 결국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1993년 교육문화부장관 결정서 060/U/1993호에 의해 지방어 교육은 급격히 쇠퇴하게 되었다”라고 언급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방어는 공교육에서 그리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현재 지방어 교육은 지방특성화수업(muatan lokal)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 예로 마카사르 시 제18국립중학교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주당 영어는 4+1시간, 인도네시아어는 4시간, 그리고 지방특성화수업은 2시간씩 교수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특성화수업은 지방어 수업과 공예 기술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술적으로 지방어는 주당 1시간밖에 교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http://smpnegeri18makassar.sch.id/profil/muatan-kurikulum>). 이와 같은 지방어 교육의 쇠퇴는 남부 술라웨시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지방어의 습득 또는 학습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Minangkabau)족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980년 인구조사와 1990년 인구조사를 비교해보면, 마카사르어(부기스어 포함)를 제1언어로 습득하는 5-9세 어린이의 비율이 10년 새 20%나 감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Musgrave, 2011, p. 17). 최근 통계는 얻지 못했지만, 마카사르어를 제1언어로 습득하는 사람의 비율은 1990년 이후에도 계속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현재 많은 마카사르족 젊은이들이 마카사르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4.2.5. 표준화

마카사르어는 철자법과 문법에서 일정 부분 표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남부 술라웨시 지방어들의 완성철자법 지침서가 1984년 작성되었으며, 회계연도 1985/1986년엔 지롱 바상(Djirong Basang) 등이 마카사르어 완성철자법 지침서를 책으로 출간하였다. 그리고 마카사르어 문법은 회계연도 1993/1994년에 실시된 지방어문학과 인도네시아어문학 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술되었다(Manyambeang et al., 1996, pp. iv, 9, 10, 13-17). 하지만 아직까지 마카사르어의 표준화 정도는 인도네시아어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다.

4.2.6. 논의: 인도네시아어와 마카사르어 간 양층어 현상

위에선 인도네시아어와 마카사르어 간 관계를 양층어를 정의하는 사회·문화적 조건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위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부 술라웨시의 사회언어적 상황은 양층어의 사회·문화적 조건을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남부 술라웨시는 양층어 사회로 규정될 수 있다. 다만, 도시인 마카사르 시를 양층어 사회로 규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양층어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인 기능 측면에서도 마카사르 시는 뚜렷한 상보적 분포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남부 술라웨시는 홍콩처럼 현대 양층어(modern diglossia) 사회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Snow, 2010, p. 168-175). 첫째, 남부 술라웨시의 양층어 현상은 현대화 또는 국가 건설의 산물이다. 둘째, 남부 술라웨시의 상층어는 고대 고전어(ancient classical language)가 아니라 현대 표준어(modern standard language)이다. 셋째, 남부 술라웨시에서 상층어는 엘리트와 평민을 구분 짓는 척도로 사용되지 않는다.

4.3. 양층어와 지방어 사멸

남부 술라웨시의 마카사르 시는 (1c)에 기술한 양층어가 부재한 이중어 사회의 특징을 보인다. 마카사르 시는 현재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른 급변기를 맞고 있다. 이런 변화 탓인지 마카사르 시에선 인도네시아어와 마카사르어가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다. 즉,

우월한 인도네시아어가 점점 마카사르어의 기능을 잠식해가고 있는 것이다. 마카사르어는 화자 수가 2백만 명가량인 주요 언어(major language)이다. 따라서 이 언어가 근시일내에 사멸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작금과 같은 사회언어적 상황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마카사르어도 사멸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인도네시아의 지방어들 중에서 140개가 현재 사멸 위기에 처해 있다(<http://www.suarapembaruan.com/home/140-bahasa-daerah-di-indonesia-terancam-punah/50053>). 이 중 대부분이 화자 수가 적은 소수 언어들(minor languages)이다. 만약 화자 수가 적은 지방어들이 (1c)와 같은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다면, 이 언어들에 근시일내에 사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가능성은 칼리만탄(Kalimantan) 섬의 경우를 참고하면 매우 현실적인 것이 된다. 칼리만탄 섬의 반자르어(Banjarese) 화자 수는 1980년에서 1990년까지 10년 세에 1,419,404명에서 2,755,261명으로 급증하였다. 이 증가분의 대부분이 사멸된 소수 지방어에서 유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Steinhauer, 1994, p. 783),²⁷⁾ 우리는 지방어 보전의 시급함을 과연 실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방어의 사멸 위기는 언어 간 상보적 기능이 뚜렷이 존재할 때 극복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도네시아어와 지방어(또는 주요 지방어와 소수 지방어)의 기능이 상보적으로 분포할 때 지방어를 보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보적 분포를 도시에선 좀처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카사르 시와 같은 도시에선 지방어 사용이 시골에 비해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고등 교육에서의 인도네시아어 양층어 교육

언어 순화주의자들은 하층어를 가르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층어가 교육과 학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Zarbaliyeva, 2012). 이런 시각은 국내 대학의 인도네시아어 교육에서도 발견된다. 국내 대학의 인도네시아어 교육은 지금껏 상층어인 표준 인도네시아어만을 그 대상으로 삼아 왔다.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도네시아어의 상층어와 하층어는 비교적 뚜렷한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 따라서 상층어를 일상 대화에 사용하면 어색한 언어사용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내 대학의 인도네시아어 교육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인도네시아어과 대학생들이 인도네시아인과의 대화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표준 인도네시아어만을 교육 받은 필자도 뉴스나 신문보단 청춘드라마, 쇼 프로, 영화 그리고 청소년 소설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27) 소수 지방어의 사멸은 인도네시아어 사용만이 그 원인이 아니다. 반자르어와 같은 주요 지방어의 사용이 소수 지방어 사멸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의 사회언어적 상황은 복잡다기하다.

대학의 외국어 교육은 물론 유창한 언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외국어 교육을 통해 유창한 언어 구사 능력을 갖길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 요구에 맞는 교육을 시행한다는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어의 하층어도 대학 교육의 커리큘럼 속에서 교수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하층어에 대한 교육은 인도네시아어 학습에 동기를 부여해 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대학생들은 인도네시아인과 유창하게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상층어만을 학습해서는 인도네시아인과 유창하게 대화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몇몇 인도네시아어과 대학생들은 인도네시아어 학습에 흥미를 잃기도 한다(Palmer, 2007).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제르바이잔대학교의 인도네시아어과는 4학기부터 하층어를 교육하고 있다(Zarbaliyeva, 2012, pp. 511, 512). 국내 대학도 이처럼 인도네시아어 하층어를 교육한다면,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상승돼 상층어 교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층어에 대한 교육은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문화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인도네시아어의 두 변이어 간 차이는 분명 아랍어만큼 크진 않지만,²⁸⁾ 이를 무시할 만큼 그 차이가 작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어 하층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층어가 주로 사용되는 수많은 문화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이해하거나 재생산할 수 없다. 이런 사실은 문화콘텐츠에 민감한 국내 대학생들로 하여금 대학 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할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어 학습에 대한 동기도 감소시킨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층어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어 하층어를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물론 하층어가 사용된 메트로팝 소설, 청소년 소설, 청춘드라마, 영화 등을 간간히 수업에 사용하는 것도 좋은 교수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학문적이고 효과적인 교수법은 ‘인도네시아어 상층어와 하층어 비교 연구’와 같은 교과목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왜냐하면, 양층어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없는 인도네시아의 사회언어적 상황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바라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6. 나가는 말

본 논문은 인도네시아의 양층어 현상을 두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인도네시아어의 상층어와 하층어 간 양층어 현상을 퍼거슨의 정의에 기대어 고찰하였다. 인도네시아어의 두 변이어 간 관계는 퍼거슨이 제시한 양층어의 정의와 조건에 대부분 부합하였다. 다음으로, 인

28) 아랍어 두 변이어 간 차이는 흔히 두 언어 간 차이에 비유될 정도로 크다(Kaye, 2001, p.127).

도네시아어와 지방어 간의 양층어 현상을 피시먼의 정의에 기대어 고찰하였다. 남부 술라웨시의 마카사르어를 지방어의 예로 선정하였는데, 인도네시아어와 마카사르어의 양층어 현상은 시골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이 외에 본 논문은 양층어 현상과 관련해서 지방어 사멸 문제도 언급하였다. 양층어 현상이 언어 존속에 중요한 요소임을 마카사르 시의 마카사르어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어 하층어 교육의 필요성도 간략히 기술하였는데, 인도네시아어 하층어에 대한 교육이 상층어 교육에 일조할 수 있음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동안 국내 인도네시아 학계는 인도네시아의 양층어 현상을 소홀히 다루었다. 전태현(2004)의 '인도네시아어 회화'를 제외하면, 인도네시아의 양층어 현상을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를 찾기 어렵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도네시아의 양층어 현상을 고찰한 본 연구는 의미 있는 시도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본 논문은 인도네시아 양층어 연구 서설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양층어 현상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룬 추후 연구가 있어야만 비로소 인도네시아의 사회언어적 상황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참고문헌

- 전태현. (2004). *인도네시아어 회화*.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전태현. (2010). 인도네시아의 언어정책-짜아짜이어 한글 표기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언어문화학*, 7(2), 171-193.
- 전태현. (2013). 『라 갈리고』에 나타난 부기스족의 정체성과 세계관. *세계문화비교연구*, 43, 63-89.
- 전태현. (2014). *인도네시아 국어수호 정책의 허와 실*.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제14차 국제학술대회, 서울, 6월 2-3일.
- Antonini, R. (2006). *Irish language use in the community and family domains in two Gaeltacht areas: A comparative analysis*. Retrieved May 5, 2014, from <http://www.ncl.ac.uk/linguistics/assets/documents/RACHELE-ANTONIN I-FT.pdf>.
- Arka, I W., & Yannuar, N. (2013). *On the syntax and pragmatics of -in in colloquial Jakartan Indonesian*. Paper presented at the 44th Australian Linguistic Society Conference, Victoria, 1-4 October.
- Boechari. (2012). *Melacak sejarah kuno Indonesia lewat prasasti*. Jakarta: Kepustakaan Populer Gramedia.
- BPS Kota Makassar. (2010). *Makassar dalam angka*. Makassar: UD ARESO.

- Brunelle, M. (2008). Diglossia, bilingualism, and the revitalization of written Eastern Cham. *Language Documentation & Conservation*, 2(1), 28-46.
- Chaer, A. (2002). *Pembakuan Bahasa Indonesia*. Jakarta: Penerbit RINEKA CIPTA.
- Chaer, A. (2009). *Fonologi Bahasa Indonesia*. Jakarta: Penerbit RINEKA CIPTA.
- Cho, T. Y. (2011). Aksara Sérang sebagai wadah pembinaan tamadun Islam di Sulawesi Selatan: Kajian gramatologi.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sanuddin University. Makassar, Indonesia.
- Cho, Y. Y. (2002). Diglossia 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ast Asia*, 20(1), 3-23.
- Christopher, D. (1993). Has the concept of "diglossia" been refined so much that a useful distinction between diglossic and non-diglossic societies has been lost? In P. Santana (Ed.), *Actas de las II jornadas de lengua y literatura Inglesa y Norteamericana* (pp. 39-46). Logroño: Colegio Universitario de La Rioja.
- Collins, J. T. (2011). *Bahasa Melayu bahasa dunia: Sejarah singkat*. Jakarta: Yayasan Pustaka Obor Indonesia.
- Dardjowidjojo, S. (1998). Strategies for a successful national language policy: The Indonesian cas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130, 35-47.
- Deterding, D. (1998). Approaches to diglossia in the classroom: The middle way. *REACT*, 2, 18-23.
- Fang, L. Y. (1993). *Sejarah kesusastraan Melayu klasik: Jilid 2*. Jakarta: Penerbit Erlangga.
- Fasold, R. (1984). *The sociolinguistics of society*. London: Blackwell.
- Ferguson, C. A. (1959). Diglossia. *Word*, 15, 325-340.
- Ferguson, C. A. (1972). *Language structure and language us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Ferguson, C. A. (1991). Diglossia revisited. *Southwest Journal of Linguistics*, 10(1), 214-234.
- Fishman, J. (1967). Bilingualism with and without diglossia; diglossia with and without bilingualism. *Journal of Social Issue*, 23(2), 29-38.
- Fishman, J. (1971). *Sociolinguistics: A brief introduction*. MA: Newbury House.
- Fishman, J. (1972). *Language in sociocultural chang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Garcia, O., & Schiffman, H. (2006). Fishmanian sociolinguistics(1949 to the present). In O. Garcia, R. Peltz, & H. Schiffman (Eds.), *Language loyalty, continuity and change. Joshua A. Fishman's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sociolinguistics* (pp.

- 3-68).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Goebel, Z. (2005). An ethnographic study of code choice in two neighbourhoods of Indonesia. *Australian Journal of Linguistics*, 25(1), 85-107.
- Hassal, T. (2011). *Learning to read colloquial Indonesian*. Retrieved April 4, 2014, from http://chl.anu.edu.au/languages/_documents/indonesian_module.pdf.
- Hudson, A. (2002). Outline of a theory of diglossia.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157, 1-48.
- Jukes, A. (2011). Aspectual and modal clitics in Makassarese and Makassar Indonesian. In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TAM and evidentiality in Indonesian languages*. 19-28.
- Kaye, A. S. (2001). Diglossia: The state of the art.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152, 117-129.
- Manyambeang, A. K., Mulya, A. K., & Nasruddin. (1996). *Tata Bahasa Makassar*. Jakarta: Pusat Pembinaan dan Pengembangan Bahasa.
- Musgrave, S. (2011). *Language shift and language maintenance in Indonesia*. Retrieved March 15, 2014, from http://users.monash.edu.au/~smusgrav/publications/LMLS_Indonesia_Musgrave.pdf.
- Nababan, P. W. J. (1985). Bilingualism in Indonesia: Ethnic language maintenance and the spread of the national language. *Southeast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13(1), 1-18.
- Palmer, J. (2007). Arabic diglossia: Teaching only the standard variety is a disservice to students. *Arizona Working Papers in SLA & Teaching*, 14, 111-122.
- Paolillo, J. C. (1994). Finding the "two" in diglossia. In S. C. Herring, & J. C. Paolillo (Eds.), *UTA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 (pp. 15-31). Arlington: The Program in Linguistics at The University of Texas.
- Pricillia, A. W. (2012). *Zero class*. Jakarta: Penerbit PT Gramedia Pustaka Utama.
- Ram, N., & Bandung, A. B. T. (2011). *I La Galigo Vol 1*. Makassar: Pustaka Refleksi.
- Sartini, N. W. (2012). Bahasa pergaulan remaja: Analisis fonologi generatif. *Mozaik: Journal Ilmu Humaniora*, 12(2), 122-132.
- Sneddon, J. (2003a). Diglossia in Indonesian. *Bijdragen tot de Taal-, Land- en Volkenkunde*, 159(4), 519-549.
- Sneddon, J. (2003b). *The Indonesian language: Its history and role in modern society*. Sydney: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Press.
- Snow, D. (2010). Hongkong and modern diglossia.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 Sociology of Language*, 206, 155-179.
- Sridhar, K. K. (1996). Societal multilingualism. In S. L. McKay, & N. H. Hornberger (Eds.), *Sociolinguistics and language teaching* (pp. 47-7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inhauer, H. (1994). The Indonesian language situation and linguistics; Prospects and possibilities. *Bijdragen tot de Taal-, Land- en Volkenkunde*, 150(4), 755-784.
- Stepkowska, A. (2012). Diglossia: A critical overview of the Swiss example. *Studia Linguistica Universitatis Lagellonicae Cracoviensis*, 129, 199-209.
- Winford, D. (1985). The concept of "diglossia" in Caribbean creole situations. *Language in Society*, 14, 345-356.
- Wouk, F. (2004). Nasal transitive prefixes in spoken Jakarta Indonesian. *Nusa*, 53, 21-28.
- Zarbaliyeva, L. (2012). *The importance of teaching slang in the class of Indonesian as a second language*. Paper presented at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onesian Studies, Bali, 9-11 February.

<인터넷 사이트>

<http://forum.kompas.com/nasional/21368-75-200-000-orang-bertutur-bahasa-jawa.html>

<http://smpnegeri18makassar.sch.id/profil/muatan-kurikulum>

<http://sp2010.bps.go.id/index.php/navigation/topik>

<http://www.suarapembaruan.com/home/140-bahasa-daerah-di-indonesia-terancam-punah/50053>

<http://www.sulsel.go.id/content/profil-provinsi-sulawesi-selatan>

이주영

90245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마카사르 시

하사누딘대학교 언어학과 박사과정

전화: (+62)-82112906841

이메일: cintamucintaku@hanmail.net

Received on June 14, 2014

Revised version received on August 25, 2014

Accepted on September 5, 2014